

“단순, 명쾌하게
사는게 최고죠”

김재수 정보시스템부 표준화기술지원실 책임연구원

글 · 사진 _ 김희정 ·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김재수 팀장의 애마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얇고 섬세해 보이는 손가락과 긴 속눈썹이었다.

문득, 창백하고 아름다운 손가락이 모티브였던 작가 이외수의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라는 소설이 생각났다. 더불어 그의 긴 속눈썹은 언젠가 아주 아픈 사랑을 해봤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안타깝게 타들어가는 가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2005 코리아오픈 마라톤(42km)출전

가을별이 너무나 아름다운 날, 이번 호 'Focus In 이 사람'의 주인공 김재수 팀장(표준화기술지원실)을 만났다. 대단한 인라인 스케이팅 마니아라는 것이 사전정보 전부였던 터라 딱 벌어진 체격의 건강맨을 상상했으나, 웬걸. 처음 만나는 그의 인상은 여리고 섬세했다.

인라인은 내 인생

“인라인 마니아시라면서요?”

인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조용하던 그의 입에서 탁구공처럼 톱톱 말이 튀다. “거의 매일 퇴근하자마자 타고,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면서 20~30km 정도 달립니다. 비오는 날에는 실내트랙을 가구요. 미쳐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온 가족이 미쳐있으니까 왕따 될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 인라인 시작한 것도 취미로 쇼트트랙을 하던 두 딸한테 배우면서였거든요.”

거의 매일, 그리고 매주 철새처럼 온 가족이 함께 전국을 누비다보니 이제 인라인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김재수 팀장. 온 집안의 스케이트 값만 300만 원이 넘고, 본인의 애장품은 무려 180만 원이나 되는데다, 주말마다 여행기까지 감당하려면 지출 또한 상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계산법은 철저하게 과학기술자다웠다.

“솔직히 지출이 좀 되죠. 근데 계산을 해 봅시다. 제가 인라인하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럼 1년에 120만 원이 절약되구요, 온 식구가 건강해 병원갈 일 없으니 병원비도 적잖이 절약되구요, 거기다 온 가족 화목하고 아이들 성격도 자신감 넘치게 되고... 이것저것 얻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출과다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단순하게 혹은 명쾌하게

참으로 일목요연한 대답이다. 그의 인생경영은 언제나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푹 떨어지는 공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일까?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업무에 관해서는 ‘그렇다’ 다.

인터뷰 도중 우연히 들른 산업기술정보원(KINITI) 동기 정보마케팅실 김찬호 팀장의 증언. “동기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김재수한테 물어봐’가 유행어였습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한 문제도 김재수 이 친구한테 가면 곧바로 단순해져요. 그 문제가 왜



경하, 민선 두 딸과 함께 인천국제 인라인마라톤대회 출전



생겼는지,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한 눈에 보이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하나 막히는 것이 없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술술 답변이 나온다.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미래까지 설계해 놓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형태의 답변들이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노후생활의 밑그림까지 다 그려놨다니 할 말 다 한 셈인지도 모른다.

“시골에 펜션을 짓고, 근방에다 인라인 트랙이랑 숲 같은 걸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인라인 마니아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인라인 촌을 만들어서, 소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인라인도 실컷 즐기면서 노후를 살 계획이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세상 복잡하고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쩐지 우수에 찬 듯, 사연 많을 듯 보였던 첫인상과는 달리 명쾌하고 시원시원한 그의 답변을 들으니, 눈으로 보는 사람과 말과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참으로 다른 것이구나 싶다.

📌 나는 KISTI의 문지기

“생각해보면 처음 KINITI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계획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KISTI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KISTI와 연관된 가장 큰 행운은 무엇보다 그의 아내라고 한다. 전산 전공자인 그가 KINITI에서 처음으로 가게 된

부서는 홍보교육실. 공군 장교로 3년 반 있으면서 전산교육을 담당했던 경력 때문이었다.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그는 평생의 반려자를 얻었다. 바로 홍보교육실에서 근무하던 차옥란씨를 만난 것. 예쁘고 맘씨 좋고, 더군다나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를 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해서 인라인 스케이팅 동반자로서도 너무 훌륭한 그녀를 말이다.

“업무에 있어서도 행운이 많았어요. 93년부터 10년 동안 팀스(TIMs;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개발과 보급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죽 식별체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잖아요. 특히 팀스는 애정이 많이 가요. 친자식 같죠. 처음 팀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국내 중소기업체의 전산시스템 수준은 정말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팀원들과 함께 팀스를 개발해 130여개 중소기업체에 보급하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의 수익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고마워 할 땐 정말 보람이 컸구요. 아직도 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같은 회사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가 참 뿌듯하죠.”

* 팀스(TIMs;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이를 정보검색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정보관리시스템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식별체계사업은 각 지식정보에 고유한 등록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물리적인 위치정보 없이 고유한 식별자만으로도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차세대 정보유통환경의 필수요소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이 식별체계사업으로 그는 팀스에 이어 두 번째 자식을 키우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에 비해 지금의 컴퓨팅 기술은 천배 이상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그랬듯 지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의 첨단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안정적으로 제 연구를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끝까지 KISTI의 문지기로 남고 싶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전하는 인생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고 꿈꾸는 KISTI는 어떤 것일까? KISTI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들처럼 단순, 명쾌한 청사진을 갖고 있을까?

“지금까지 KISTI는 국내 과학기술 정보유통 분야의 최고였습니다. 어떤 기관도 따라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최고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떨어진다든 것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의 개념 자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를 더욱 앞서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다른 기관, 국가 그리고 기술들에 좀더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는 KISTI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장애가 “최고”라는 것이며, “도전”이야말로 지금의 KISTI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도전’이 계속되길 바라며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고, 도전할 것은 더욱 많아집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면서 담배를 끊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도전을 위한 자기관리의 일환이죠. 나이가 들수록 도전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젊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구요.”


인라인과 KISTI의 공통점, 중독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정, KISTI,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꼽는다는 김재수 팀장. 그 중에서도 특히 KISTI와 인라인은 공통점이 매우 크다.

“둘 다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연구를 하다 난관에 부딪히면 정말 골머리를 앓죠. 하지만 난관을 현명하게 잘 넘기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고 투지가 생겨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도 숨이 넘어갈 듯 힘들다가 어느 순간 그 경지를 넘어서면 정신이 맑고 편안해 집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KISTI든 인라인이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중독상태죠. 평생 이 상태로 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의 중독상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삽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이토록 명쾌하게 정의내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 한 구석이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분분할 때면, 그의 단순한 만큼 명쾌한 인생론을, 그래서 참으로 건강해 보이는 삶을 떠올릴 것 같다.

KISTI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와 함께 밝고 아름답게 살아갈 그의 미래에 축복을 보낸다. 

** FOCUS IN 이 사람'에서는 한 번쯤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은 KISTI인을 추천받습니다.
집중 조명해 보고 싶은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나이·성별·직급 상관없습니다.
(대외협력과 김희정)

김 재 수

- 1984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 1986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전산학 석사
- 1991~2000 :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컨설팅팀장/부연구위원
- 1994 : UNESCO Paris 본부 파견 근무
- 2001~현재 : KISTI 정보시스템부 표준화기술지원실팀장/책임연구원
- 2004~현재 : 홍익대학교 전자전산공학 박사과정중

